

唯物論 批評의 根據(三)

李灌鎔

[二] 形而上學的 唯物論

이 難點을 避하기 위하여『제모크리토스[데모크리토스]』는 다음과 같은 原則을 세우게 되었다.

(六) 『心靈은 불(火)과 같이 精巧하고 圓滑한 原子로 成立된 것이다. 이 原子들은 가장 急速히 活動하는 것으로 全身에 浸透하여 잇스며 그 運動에 의하여 生의 現象을 形成시키는 것이다.』여기 처음으로 精神의 物質的 說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잇스며 또 여기 우리가 말하는 二元論的 唯物論의 根據가 잇는 것이다.

이와 같이 現實世界的 原性を 說明함에 잇서서 物質不滅則事變의 必然性, 事物의 原子化, 運動의 重要性, 質의 量化, 精神의 物質的 關係 等은 哲學的 唯物論의 基本原理인 것을 우선 簡畧히나마 말해둘 必要가 잇다.

[三] 單元論的 唯物論

唯物論으로 始作된 希臘哲學이 『소크라테스』 時代에 이르러 反唯物論의 反動期에 드리갓고 『아리스토텔레스』 以後 哲學思想에서 이르는 바 『希臘羅馬時代』에 이르러 다시 唯物論的 形態를 取하였다. 그러나 耶蘇敎思想의 西歐 流入과 同時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反唯物論的 思想이 圓形的으로 復活되고 哲學은 數百年間 神學의 『奴婢』의 地位에 貶下되고 마렸다. 文藝復興期에 드리가며 自然科學의 基礎가 創設될 때 哲學은 다시 唯物論 基礎위에 獨立하기 始作하였다. 이 傾向이 十七世紀에 드리가며 英國에서 始作되고 十八世紀에 이르러 佛國에서 基礎가 附與되어 十九世紀의 獨逸에서 盛大한 發展을 보게 되었다.

單元論的唯物論의 創始者는 英國의 『토마스 홉스[토마스 홉스]』이다. 그는 實在을 究竟의으로 運動에 歸結시켜 버리고 心理現象까지도 結局은 肉體的

作用에 歸結시켰다. 『틀렌드[틀랜드]』, 『혹크[호크]』等 自然科學者 等은 모든 精神作用을 腦髓作用에 依屬시켜버리는 同時에 頭腦를 顯微鏡으로 檢査해야 健康한 腦髓가 二百萬의 表象(事物의 印象)을 貯藏할 만하다는 主張까지 까지 아녔다.

佛國의 『라멧트리[라메트리]』는 그 『人間機械』란 著書에 活動能力과 感覺能力을 物質의 固有한 屬性으로 說明할 뿐 아니라 心靈이 肉體를 그 『寓所』로 하고 있어서 肉體 全體에 퍼져있는 까닭에 物體의 重要 屬性인 延長性을 具有하였다는 뜻으로 物質과 同一하다는 斷案을 내렸다. 『홀싸흐[홀바흐, 돌바흐]』도 그 『自然의 體系』란 著書에 心靈이라는 것이 肉體의 作用에 不過하다 하여 英國 唯物論의 主張 즉 精神이 物質에 依屬되었다는 것을 精神과 物質이 同一하다고 主張하였다.

十九世紀 獨逸에 이르러 『헤겔』의 思辨哲學이 衰退되고 心靈과 肉體의 關係에 對하는 生理學的 智識이 全無하든 進歩를 보게 됨에 차려 『폭트[포크트]』 『몰레쉴트[몰레쇼트]』 『썬(或썬)흐너[뷔흐너]』等의 唯物論者等이 輩出하여 唯物論을 얼마쯤 認識論的 基礎위에 建設코자 努力하였다. 『썬흐너』의 말에 依하면 物質은 精神보다 훨씬 以前부터 存在하였었고 精神은 物質의 一定한 組織에 依하여 생긴 것이다. 그 까닭에 精神은 物質에 內在하[한]다고 할 수 잇스며 차라서 이러한 意味의 精神(精神이 生길 素質)은 언제든지 物質과 함께 잇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精神에 內在한 肉體의 部分으로서 腦髓가 特히 重要하다는 생각으로 『썬흐너』는 理性, 想像, 記憶, 數에 關한 感覺, 空間에 關한 感覺 等を 各各 特殊한 腦神經細胞에 依屬시키는 同時에 正常腦髓에는 約十萬個의 表象을 貯藏할 수 있다하며 腦髓에 五億 乃至 十億의 神經節細胞가 있다 하여 精神이 얼마든지 發展할 餘裕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 다음에 『헉켈[헤켈]』도 그 數多한 生物學的·哲學的 著述에 唯物論的 單元論을 主張하여 『細胞의 心靈과 心靈의 細胞』를 云云하였다.

이 모든 主張을 綜合하여보면 歸着되는 點은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精神을 物質의 作用이라 하면 그 두 가지를 同一화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上等的 唯物論이라 부르는 것이요. 둘째는 精神이 物質의 一定한 組織을 因하여 생긴다는 뜻으로 物質이 精神發生의 原因이라면 이것은 因果的 唯物論이요 한번 이렇케 생긴 精神이 物質의 屬性에 不過하다면 이것은 屬性的 唯物論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各各 생각하여 그 缺點이 어디 잇스며 그 批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여기 論評하고자 한다.